

특허데이터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향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¹⁾

요약

기업이 큰 변화나 위기를 맞을 때에는 사업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보유한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많은 중견·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사업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데이터에 기반해 사업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산업 내 전환 방향으로 OLED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등이 도출되었으며, 산업 외 분야로는 조명 장치, 태양광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은 하이브리드차 부품이 산업 내 전환 방향으로 도출되었으며, 산업 외 분야로는 액추에이터 및 로봇, 공기청정기, 건설기계, 농기계용 변속기 부품 등이 유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전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과 연구개발 자금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전환 방향 탐색을 위한 사전컨설팅을 확대하는 한편, 신기술 및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

1) 본 연구는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의 내용 보완하여 요약·정리하였다.

1. 들어가며

사업상의 큰 변화나 위기가 예상될 때, 기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사업전환을 시도한다. 최근 산업환경은 코로나19,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며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견·중소기업의 대응은 소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85.4%의 기업이 사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그중 26.9%의 기업만이 사업구조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다.²⁾ 특히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산업

은 산업환경 변화가 급격히 진행 중이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LCD의 경쟁력이 하락하며 OLED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인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양 산업은 사업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며, 장기간에 걸친 연구개발과 투자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산업환경의 변화로 보유한 기술의 수요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디스플레이와 자동차산업 내에서 기술력을 갖춘 중견·중소기업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역량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향을 살펴보았다.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2), 「중소 사업 구조전환 대응 동향조사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KOSME 이슈포커스」.

2. 사업전환 방향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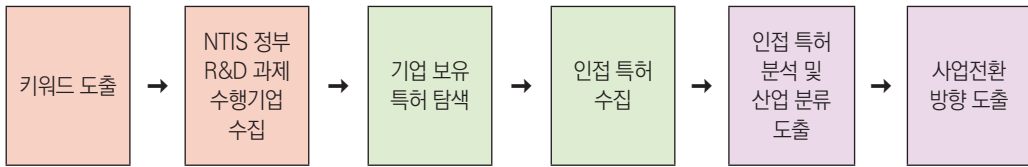
기업이 성공적인 사업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과감한 도전보다는 보유한 자산과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 산업이 보유한 경쟁력인 기술역량 관점에서의 사업전환 방향을 모색하였다. 양 산업은 기술집적도가 높은 산업으로 기술 및 연구역량 기업의 중요 경쟁력으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인력, 설비, 연구 경험 등의 기술역량은 기업의 핵심 자산이다. 따라서 양 산업은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는 사업전환 방향이

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역량을 정량화하기 위해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수요가 사라질 품목들을 도출하고, 이들 품목을 생산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방향을 제시한다. 그 결과로 양 산업의 중견·중소기업이 대기업 생태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업전환 방향을 제시하였다.

사업전환 방향은 ① 키워드 도출, ② R&D 수행기업 수집, ③ 수행기업 보유 특허 탐색, ④ 인

〈그림 1〉 특허데이터 분석 순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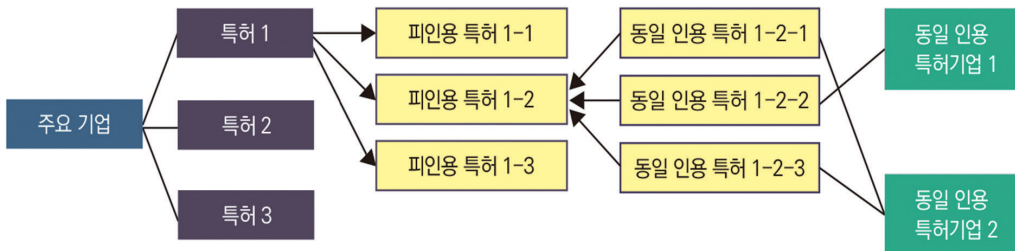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접 특허 수집, ⑤ 인접 특허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자료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과 자동차산업에서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수요처가 사라질 품목을 도출하고, 이들의 세부 부품을 키워드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키워드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이하 NTIS)와 연계

하여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기업들을 추출하고, NTIS를 통해 수집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 간 인용관계의 특징을 활용하여 사업전환 방향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를 통해 피인용 특허와 동일 인용 특허를 수집하였다.

〈그림 2〉 특허 인용 네트워크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표 1〉 LCD 관련 세계 특허 분류 코드

세계 특허 분류 코드(IPC): 해당 분야
C09K-011, C09K-019, C09K-101: 전자산업용 소재(광소재 포함)
G02B-001: 광부품
G02B-005: 광부품(렌즈 이외 광학 요소)
G02F-001: LCD 구조 기판
G03G-005: 전자 인쇄 재료
G03G-013: 전자 인쇄 장치
G09G-001, G09G-003: 전계 방출 디스플레이(FED), 기타 디스플레이
G09G-005: 디스플레이 제어
H01J-037: 광부품(전자관, 방전램프, 방전관)
H01L-033: 광소자
H05B-031: 광원(조명)
H05B-037, H05B-039, H05B-045: 광원(회로제어)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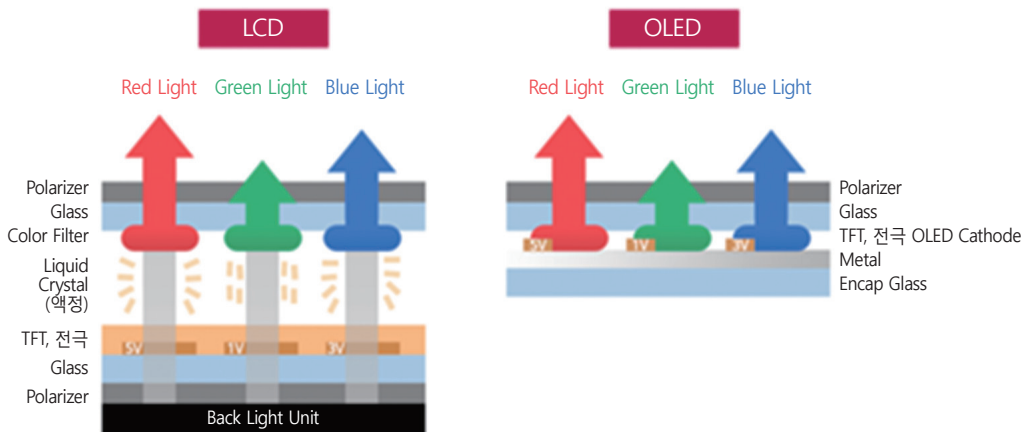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업이 사업전환을 시도할 때 보유한 기술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유사한 기술 수준을 가진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유리하다는 가정에 근거하여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특허의 인용 관계에서는 피인용 특허가 기술적으로 가장 근접한 특허이다. 그러나 피인용 특허를 직접 활용하면 다수의 원천 특허와 기초기술이 포함되어 본 연구에서 목표하는 사업전환 방향이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인용 특허를 제외한 가장 가까운 근접 특허인 동일 인용 특허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그림 2>와 같이 특허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특허 네트워크에서 인용은 기술적으로 회피가 어렵거나, 적어도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의미한다. 특허 네트워크를 통해 수집된 동일 인용 특허는 특허청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분류를 통해 사업 분야를 분류하여 품목별 세분화된 사업전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1) 디스플레이산업의 사업전환 방향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의 공격적인 설비투자로 인해 LCD 패널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 패널기업은 수익성이 부족한 LCD 생산을 축소하고, 주력제품을 OLED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LCD 전용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후방기업의 경영 안정성이 하락하였고 사업전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LCD 전문기업의 OLED 진출이 어려운 이유는 크게 구현방식과 산업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LCD는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 비자발광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위해 광원과 광학 소재 및 부품이 필요하다. 반면,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 부품들이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LCD 감산으로 LCD의 광원과 광학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후방기업은 제품의 수요가 빠르게 축소되었으며, 이는 세계 선도 기술을 보유

<그림 3> LCD와 OLED 구조 비교



자료: LG디스플레이, https://news.lgdisplay.com/2015/02/lcd_oled2/(검색일: 2022. 10. 24).

한 기업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LCD 소재·부품기업은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업전환은 소수의 기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패널 기업을 중심으로 구축된 강력한 협력 구조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산업은 패널 기업과 소재 및 부품 기업 간 기술 연계성이 높아 유출 방지를 위해 고착화된 거래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거래처 다변화와 사업 다각화가 어렵다. 그러므로 대기업이 주도하는 기술 로드맵을 통해 사업전환을 추진하며, 개별 기업 자체적으로 사업전

환을 추진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대기업의 기술 로드맵에서 이탈하는 기업의 사업전환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특허데이터 분석 대상의 선정을 위한 자료조사와 전문가 자문 결과, 사업전환이 시급히 필요한 품목으로 LCD 주요 소재·부품·장비 중 BLU, 액정, 컬러필터, 편광판을 선정하고 NTIS 과제 검색을 위해 이들 세부 분야를 키워드로 활용하였다. 품목의 세부 부품 단위에서 NTIS에서 총 558개의 연구개발과제를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총

〈표 2〉 디스플레이산업 사업전환 주요 품목 및 키워드

주요 소재 부품	주요 기술	NTIS 검색 키워드
BLU (Back Light Unit)	광원	LED Array, LCD 광원
	도광판	도광판, LGP, 프리즘 시트, 광학필름
액정 (Liquid Crystal)	배향막	배향막, alignment layer
	Spacer	Spacer, 스페이서
컬러필터 (Color Filter)	RGB	RGB, 밑베이스
	Black Matrix	Black Matrix, 블랙 매트릭스
편광판 (Polarizer)	TAC	TAC, Tri-Acetyl Cellulose
	PVA	PVA, Poly Vinyl Alcohol, 편광소자
	이형필름	이형필름, Release Film
	보상필름	보상필름, Compensation Film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표 3〉 주요 품목별 기업 및 보유 특허 도출 결과

주요 소재 부품	NTIS 과제 수	검색 기업 수	보유 특허 수	동일 인용 특허 수
BLU(Back Light Unit)	374	116	3,809	8,978
액정(Liquid Crystal)	39	18	1,179	2,103
컬러필터(Color Filter)	91	49	2,491	6,163
편광판(Polarizer)	54	31	1,260	1,897
합계	558	205	8,739	19,141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을 보완하여 재작성.

주: 과제 및 기업에서 중복이 있으나 합산 시 제외하지 않음.

〈표 4〉 디스플레이산업 품목별 사업전환 방향성 분석 결과

BLU(Back Light Unit)	산업 내 전환 방향	마이크로 LED, 발광소자, QD 소자, 커브드 디스플레이,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 외 전환 방향	조명장치, 조명기기, 전광판, 광원
액정(Liquid Crystal)	산업 내 전환 방향	유기 발광 소자, OLED 소재, 패널용 필름, 곡면 디스플레이
	산업 외 전환 방향	조명장치
컬러필터(Color Filter)	산업 내 전환 방향	마이크로 LED, 발광소자, OLED 소자,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산업 외 전환 방향	-
편광판(Polarizer)	산업 내 전환 방향	커브드 모니터, 투명 디스플레이
	산업 외 전환 방향	조명장치, 태양광, 전광판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205개의 LCD 분야 기술역량 확보 기업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는 총 8,739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동일 인용 특허는 전체 1만 9,141건으로 IPC 분류로 구분하여 사업전환 방향을 도출하였다.

산업 내 전환 방향으로 기존의 전환 방향인 OLED가 나타났다. 세부 품목으로는 유기발광소자, OLED 소재, 마이크로 LED, 투명 디스플레이, 커브드 모니터 등이 나타났다. LCD 주요 기업들이 OLED로 전환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전환 방향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부품이 OLED 제품에 적용이 어려운 부품 들임을 고려할 때, 산업 내 전환 방향은 OLED보다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및 투명 디스플레이로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산업 외 방향으로는 조명, 태양광, 전광판 등이 나타났다. 해당 분야는 빛을 조절하는 광학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LCD와 연관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와 같이 사업전환 분야로 도출된 분야는 기존 산업과 관련이 높은 분야로 도출되었다.

디스플레이산업에서 사업전환이 필요한 품목의 사업전환 방향성을 검토한 결과 LCD 부품의

사업전환 방향은 사업의 성장성 및 유망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도출되었다. 산업 내 전환 품목으로 도출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마이크로 LED, 투명 디스플레이는 기술 성숙도가 낮아 많은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분야로 경영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산업 외 전환 방향인 조명장치, 전광판 등은 시장 규모가 작아 성장성과 유망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태양광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유망한 사업 분야로 검토할 수 있으나 중국과의 경쟁이 심하며 국내 산업 기반이 약한 한계점이 있다.

(2) 자동차산업의 사업전환 방향

자동차업체들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시장 선점과 탄소중립 등 환경규제 대응을 위해 전기차 공급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이 시급해지고 기존 내연기관차의 공급 감소가 예정되어 있어 내연기관 부품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표 5〉 2021년 자동차·전기차 판매 대수 변화

단위: 만 대

	전기차 보급 전망(누적)	출처
글로벌	7,000(2025) → 23,000(2030)	IEA(2021), "Global EV Outlook 2021"
한국	283(2025) → 785(2030)	관계부처 합동(2021),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이에 기존 내연기관차 부품기업의 사업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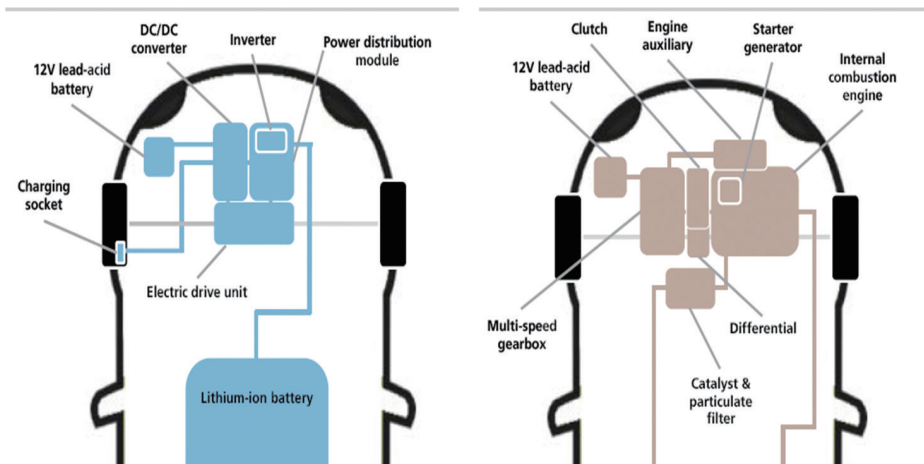
그러나 전기차 전환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 자동차산업 기업들은 이상적인 사업전환 시점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전기차 관련 부품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전기차 관련 기술이 개발되는 단계로 신기술이 새로 도입되거나 자주 변화하는 추세로 목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업전환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는 동력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전기차는 동력원으로 내연기관 대신 전

기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중 내연기관차에만 포함되는 내연기관 엔진, 연료 시스템, 배기 시스템, 변속기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Deloitte(2021)는 자동차 부품군 리스크 평가를 통해 내연기관 엔진과 배기 시스템, 연료 시스템에서 가장 높은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자동차산업에서 사업전환이 시급한 품목으로 내연기관 엔진, 변속기, 흡·배기 시스템, 연료 시스템을 선정했다. 품목의 세부 부품 단위는 NTIS에서 총 826개의 연구개발과제를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총 628개의 내연기관 분야 기술역량 확보 기업을 추출하였으며, 이들 기업이 보유한 특허

〈그림 4〉 내연기관차와 배터리 전기차의 동력원 구조 비교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UBS(2017)에서 재인용.

〈표 6〉 주요 품목별 기업 및 보유 특허 도출 결과(내연기관차)

단위: 건

주요 품목	NTIS 과제 수	검색 기업 수	보유 특허 수	동일 인용 특허 수
내연기관 엔진	256	193	2,612	4,473
흡·배기 시스템	179	126	1,967	3,207
연료 시스템	207	164	3,007	4,608
동력전달장치	184	145	2,185	1,465
합계	826	628	9,771	13,753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을 보완하여 재작성.

주: 과제 및 기업에서 중복이 있으나 합산 시 제외하지 않음.

는 총 9,771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동일 인용 특허는 전체 1만 3,753건으로 동일 인용 특허를 IPC 분류로 구분하여 사업전환 방향을 도출하였다.

자동차산업 내 사업전환 방향은 주로 하이브리드 차량용 부품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 부품으로 도출되었다. 세부 부품으로는 차량용 전자식 제어장치, 전기차용 공조장치 관련 부품, 전기차용 모터와 워터펌프의 케이싱 관련 부품, 완충부품과 변속기 등이 도출되었다. 타 산업으로의 전환 방향은 자동차산업과 사업구조나 요구기술이 유사한 사업구조를 가진 분야가 도출되었다. 자동차산업 외 전환 방향으로는 로봇, 건설기계 및 농

기계용 부품, 자율주행 평가 장비, 수소 충전소 부품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내연기관차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품을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나타났다.

자동차산업에서는 산업 내 방향과 산업 외 방향 모두 유망한 품목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내연기관차 부품은 향후 유망한 전기차 관련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의 산업 내 전환은 매출액 규모도 크고 수요기업 역시 전기차 부품 공급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어려울 경우 사업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춘 기계, 로봇, 수소

〈표 7〉 자동차산업 품목별 사업전환 방향성 분석 결과

내연기관(엔진)	산업 내 전환 방향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용 제어 시스템, 차량용 전자식 제어장치
	산업 외 전환 방향	액추에이터 및 제어시스템 분야가 확장 가능한 로봇, 자율주행 평가 및 개발 장비
흡·배기 시스템	산업 내 전환 방향	전기자동차 공조장치 부품, 전기자동차 모터와 워터펌프의 케이싱과 지지체 관련 부품
	산업 외 전환 방향	공기청정기 관련 분야 부품, 퍼스널 모빌리티 분야의 모터 관련 부품
연료 시스템	산업 내 전환 방향	전기자동차 공조장치 부품,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용 전동식 워터펌프
	산업 외 전환 방향	공기청정기 관련 분야 부품, 수소 충전소 부품(액화 수소 펌프)
동력전달장치	산업 내 전환 방향	전기차 구동 모터와 배터리의 완충용 부품, 하이브리드 차량용 변속기 부품
	산업 외 전환 방향	건설기계 및 농기계용 변속기 부품

자료: 남상욱 외(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발간 예정), 산업연구원.

충전소 등 미래 신산업 중심의 사업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 사업전환 방향은 자동차 산업 내에 보유한 역량을 심분 활용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분야이다.

자동차산업의 사업전환 방향 중 주목할 만한 점은 도출된 사업전환 방향이 전자 기기와 깊은 연관을 갖는다는 점이다. 전기차로 전환하며 전자

식 제어장치, 모터와 워터펌프 등 기존의 기계 장치류의 전자부품화가 필요하며, 산업 외 방향으로 공기청정기, 퍼스널모빌리티 등 ICT, 전기전자산업과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들이 다수 도출되었다. 이는 사업전환 과정에서 ICT 업체들과 협업을 통한 사업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3. 시사점

특허데이터를 통해 기업의 사업전환 방향을 검토한 결과 LCD 소재·부품 기업의 전환 방향은 시장이 작거나 성장성이 부족한 분야로 도출되었다. 반면 내연기관 부품은 산업 내에서는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이 가장 유망하며, 산업 외 방향으로도 요구 기술이나 산업구조가 유사한 기계, 로봇, 수소 충전소 부품 등 성장성이 높거나 유망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사업전환의 기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디스플레이산업이 상대적으로 제품의 교체주기가 짧고 광학, 소재 등의 기술이 타사업에 활용되기 어려운 특징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제품의 교체주기가 길고 전기차 전환 과정에서 전장부품들이 대거 포함되어 다양한 전환 방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 산업의 사업전환 전략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LCD 부품·소재 기업들은 산업 내 사업전환 방향을 모색하기 어렵고, 다른 산업으로


의 전환도 제한적인 품목만 도출되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기업이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전환 방향을 발굴한다면 니치 마켓(niche market)이라도 사업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업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설비 매각, IP 거래, M&A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기업이 보유한 혁신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개별 기업의 사업전환 목표가 명확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산업은 산업 내 유망한 전환 방향이 존재하고, 산업 외로도 전환 방향이 다양하여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 내 진출을 위해서는 수요기업 및 산업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확대하여 사업전환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 M&A를 통해 필요한 기술과 사업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자동차산업 외 산업으로 진출하는

기업에게는 타 산업의 정보, 네트워크 등 관련 인프리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요인이다. 이들 기업에게는 다른 산업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진출 산업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확대하거나 진출 산업의 기업과 M&A를 추진하는 등의 지원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 전기차 부품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산업 정책 차원의 지원 방향으로서는 사업전환 시 발생하는 기술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이나, 전기차 개발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의 사업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선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 투자자금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 간 M&A를 지원하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여러 사업전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업전환제도는 컨설팅, 금융, 직업훈련 등 여러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사업전환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컨설팅과 연구개발 자금 확대가 필요하다.

기업은 사업전환을 시도할 때 시점과 방향성 탐색에 어려움을 겪는다. 사업전환은 기업의 사활을 건 도전적 시도이므로 사업전환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개별 기업이 보유한 핵심역량을 명확히 파악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 탐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전환 시 필요한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사업전환 추진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은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기술역량을 기반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조차 사업전환 방향을 결정하더라도 추가적인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갈 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고, 기업이 사라지면 보유한 기술과 역량이 소실된다.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저성장 국면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2% 미만의 성장을 보이며 경제 활력이 둔화하고 있다. 선제적인 사업전환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을 창출한다면 산업 전체의 활력과 생산성을 높여 저성장 국면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오승환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시스템산업실 연구원
osh@kiet.re.kr / 044-287-3626

「조선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공저, 2022)
「기업의 기술혁신역량 분석에 기반한 사업전환 방안 연구: 디스플레이·자동차 산업 중심으로」(발간예정, 2022)



남상욱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신산업실 부연구위원
sanguknam@kiet.re.kr / 044-287-3190

「디스플레이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2022)
「2022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거시경제와 산업별 전망」(공저, 2022)